

뉴스 라운드업

- 미 국채 10 년물 장중 5.0142%까지 터치, 2023 년 10 월來 최초...종가는 4.998%(+2.9bp)로 소폭 되밀림, FOMC 인상 확률 93%
- 후티의 사우디 공격에 걸프-이란 회담 연기, WTI +1.34%로 급등...금은 오히려 -1.13%로 1 개월래 최저, 달러인덱스 99.44 로 2 주래 최고
- 美 AI 기업 경영진의 개발속도 경고에 반도체주 급락, S&P500 -0.48%·나스닥 -0.56% 동반 약세...VIX 17.11 로 +7.95% 급등
- 中 8 월 신규위안화대출 600 억위안으로 예상치(4,000 억위안) 큰 폭 하회, 印 8 월 CPI 4.82%로 3 개월 연속 목표 상회

FOMC 를 하루 앞두고 국채금리 5% 터치와 중동발 유가 급등이 긴축 경계를 다시 끌어올렸다

이번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9/16)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간밤 미국 국채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0 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5.0142%까지 올라 2023 년 10 월 이후 처음으로 5%선을 웃돌았고, 종가는 전일 대비 2.9bp 오른 4.998%로 마감해 심리적 저항선 턱밑에서 멈췄다. 2 년물도 4.668%(+3.8bp)로 함께 올랐다. 지난주 8 월 소비자물가(CPI)가 예상을 웃돈 데 이어 골드만삭스·JP 모건·메티그룹·노무라·HSBC 등 주요 투자은행이 일제히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 전망에 반영하면서, 연방기금 선물시장은 이번 회의 인상 확률을 93%까지 끌어올렸다. 독일 10 년물도 3.528%(+1.2bp)로 2009 년 중반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인상 기대와 맞물려 미·유럽 금리가 동시에 매파 극단권에 근접한 모습이다. 다만 10 년물이 5%를 찍은 뒤 곧바로 되밀린 점은 FOMC 결과 확인을 앞두고 극단적 매파 프라이싱에 대한 포지션 정리 성격의 숨고르기일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곧바로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중동 정세는 유가와 안전자산 흐름을 동시에 흔들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면서 걸프국-이란 회담이 연기됐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01.39 달러(+1.34%)까지 올랐다. 통상 지정학적 긴장은 금 등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하지만, 이번엔 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연준의 추가 긴축 기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더 크게 작용해 금은 온스당 4,298.46 달러(-1.13%)로 한 달여 만에 최저치로 밀렸다. 달러인덱스는 안전자산 수요와 금리 상승이 겹치며 99.44(+0.35%)로 2 주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달러도 1.15 까지 높였다. 이런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 조합은 신흥국 통화에도 부담을 줘 라틴아메리카 통화가 하루 새 0.9%가량 약세를 보였고 캐나다달러도 12 거래일 최저 수준까지 밀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 상호 타격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장중 유가 상승폭 일부는 되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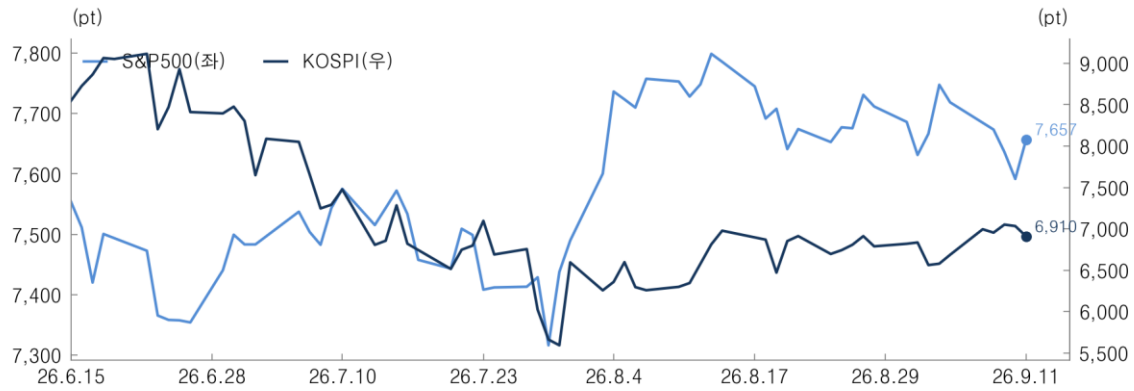
주식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발 경고가 새로운 하락 재료로 떠올랐다. 주요 AI 기업 경영진들이 개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그 여파로 S&P500(-0.48%)과 나스닥(-0.56%)이 동반 약세로 마감했다. 변동성지수(VIX)는 17.11 로 7.95% 급등해 투자심리 위축을 보여줬다.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3 분기 투자은행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10% 감소할 것이라 언급했음에도, 은행 측은 2026 년 S&P500 목표치를 오히려 상향하며 장기 강세론은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일 낮에 마감한 아시아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3.26% 급락하는 등 이미 큰 폭 조정을 겪었는데, 이는 밤사이 미국발 이벤트가 아니라 전일 자체 요인에 따른 결과이며 간밤 미 금리·유가·증시 움직임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반응은 오늘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이밖에 중국의 8 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600 억위안으로 시장 예상치(4,000 억위안)를 크게 밑돌아 신용 수요 위축 우려가 재차 제기됐고, 인도의 8 월 소비자물가는 4.82%로 3 개월 연속 목표 상단을 웃돌며 10 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웠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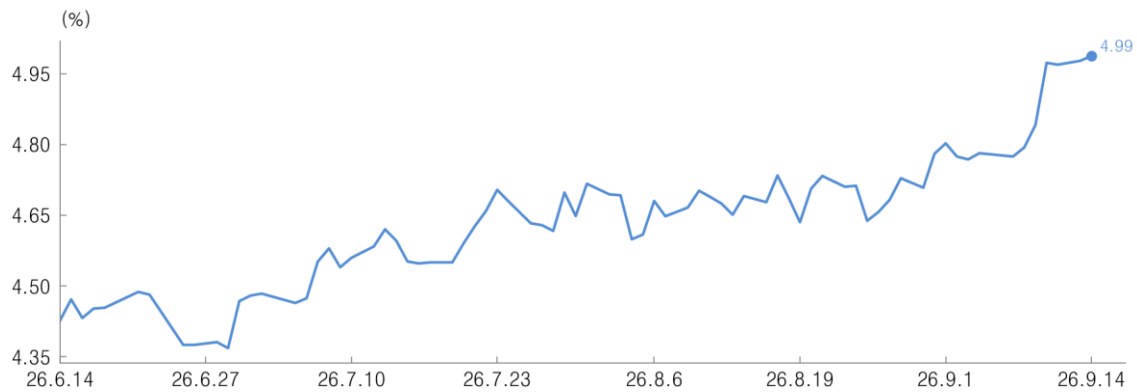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19.98	-0.48%	9/14 종가
	나스닥	26,186.40	-0.56%	9/14 종가
	STOXX 600	636.00	-0.49%	9/14 종가
	닛케이 225	63,492.77	-0.81%	9/14 종가
	CSI 300	4,480.08	-0.67%	9/14 종가
	KOSPI	6,684.37	-3.26%	9/14 종가
	항생	24,917.60	+0.45%	9/14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44	+0.35%	9/14 종가
	달러/엔	154.30	-0.03%	9/15 종가
	유로/달러	1.15	-	9/15 종가
	달러/원	1,345.88	+0.36%	9/14 종가
	달러/위안	6.71	-	9/14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998%	+2.9bp	9/14 종가
	미국 2 년	4.668%	+3.8bp	9/14 종가
	일본 10 년	2.999%	+1.2bp	9/14 종가
	독일 10 년	3.528%	+1.2bp	9/14 종가
	한국 10 년	4.532%	-3.9bp	9/14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5bp	-5.0bp	9/11 종가
원자재	WTI	101.39	+1.34%	9/14 종가
	금	4,298.46	-1.13%	9/14 종가
	구리	6.40	-2.19%	9/14 종가
변동성	VIX	17.11	+7.95%	9/14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21 권 HIGH	• 연준 이번주 인상 확정적, 미국 10 년물 수익률 5% 진입 ↳ Warsh 체제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장은 89% 확률로 선반영 ↳ 미국 10 년물 수익률 5.0% 도달(2023 년 이후 최고치), 캐나다 등 선진국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 • 달러 2 주일 최고가 경신, 유가·AI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심화 ↳ 달러지수 99.566(76.4% 되돌림) 등 주요 기술적 저항선 돌파, 엔화에 특히 압력 ↳ 캐나다 달러 1.3915 로 12 일 저점 기록, 캐나다중앙은행(BoC) 조기 인상 가능성 후퇴 신호 ↳ 중동 갈등·유가 급등과 AI 우려가 위험회피 압력 강화 • 후티 반군 사우디 공격, 걸프-이란 협상 연기로 유가~3% 급등 ↳ 브렌트유 \$104.19/배럴(+약 3%), 공급 차질 우려 확산 ↳ Trump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상호 불공격 합의 표명 • OpenAI·Anthropic CEO 개발 속도 조절 촉구, 기술주 추가 낙폭 ↳ S&P500 기술·산업주 중심으로 하락 주도, AI 관련주 낙폭 확대 ↳ 국제결제은행(BIS), AI 랠리 2 년 만에 취약성 신호 분석, 미국 대형 테크기업의 레버리지 증가로 향후 수익성에 의문 제기 • 글로벌 주식시장 동반 하락, 유가·채권 수익률 상승이 위험회피 유도 ↳ 월가 기술·산업주 중심 낙폭, 위험선호 약화 본격화 ↳ BIS, 전반적 시장 스트레스는 없으나 위험자산 선호도는 '놀랄 만한 복원력'을 보인다고 평가 • 캐나다 8 월 인플레이션 3.0% 수준 유지, 향후 관세 영향 예상 ↳ 월간 -0.1%, 휘발유 가격 상승 둔화·식료품 가격 소폭 둔화로 시장 기대치 부합 ↳ 7 월 제조업 판매 -0.4%(화학·식품 약세), Trump 50% 관세 영향은 9 월 데이터부터 본격 반영 예상 ↳ 캐나다 달러 1.3915 수준 약화, 캐나다중앙은행(BoC) 조기 인상 가능성 후퇴 • Carney 캐나다 재무장관, 미국 무역전쟁 중 투자유치 협상 강화 ↳ 2 일간 정상회담 개최, 160 개 이상 프로젝트 논의, 12~18 개월 내 구체화 예상 • 뉴질랜드 8 월 주택가격 -1.3%, 생활비 상승·고용부진에 거래 축소 ↳ 중앙값 주택가격 전월대비 -1.3%(전년동기대비 -1.3%), 주택판매 전월대비 -1.9%(전년동기대비 -10%) 기록 ↳ 뉴질랜드부동산협회(REINZ), 생활비 상승과 고용 정체로 구매자·판매자 모두 '관망' 자세 우세 • JPMorgan, 26 개국 국경시장 현지통화 채권 지수 월말 출시 ↳ \$3,310 억 규모(미 달러 기준), 국가별 가중치 최대 8% 제한, 경화(hard-currency) NEXGEM 지수 이후 20 년 만의 신규 지수 ↳ 국경시장 현지통화 채권 최근 수년간 랠리 이어짐 • 유럽중앙은행(ECB),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모니터링 관심 전환 • 포르투갈 외교장관, 이스라엘 E1 정착촌 계획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저해

권역	요약
	↳ E1 정착촌 계획, 요르단강 서안 양분·동예루살렘 고립 유도로 2 국가 해결책 저해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세수 보류는 팔레스타인 당국 재정을 '잔혹하게 압박'하는 수준으로 평가
미국 뉴스 33 건 HIGH	• 10 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5% 돌파, 3 년 3 개월 만의 진입 ↳ 장중 5.0142%까지 상승한 뒤 4.95%대로 조정, 2023 년 10 월 이후 처음 돌파한 심리적 저항선으로 시장 전반에 파급 우려 ↳ 이란 관련 중동 분쟁 재개 후 유가 급등, 8 월 물가 가속화, 연준의 긴축 기조 재확인인 채권 대량 매도로 이어짐 ↳ 소비자·기업의 차입 비용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파급 우려 • 연준, 수요일 금리 인상 사실상 확정, 3 월까지 추가 인상 예상 ↳ 정책회의 9 월 16 일(수요일) 개최, 선물시장이 인상 가능성을 87~93%로 평가하며 사실상 확정 ↳ 8 월 물가 가속화(코어 CPI 4 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 유가 배럴당 \$100 돌파로 긴축 기조 재확인 ↳ 골드만삭스·JP 모건·씨티그룹·노무라·HSBC 등 주요 증권사도 인상 예상 시사 • AI 기업 수장들 개발 속도 조절 요청,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급락 ↳ AI 기업 수장들이 개발 속도 둔화 및 안전 우려를 공개 표명 ↳ 상원에서 AI 기업의 안전 조치 의무화 관련 규제 법안 논의 중 ↳ 트럼프, '기존 미국 규제에 충분하다' 강조하나 시장의 규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 • 중동 분쟁 재심화로 유가 배럴당 \$100 돌파 ↳ 브렌트유 최대 4% 상승하며 배럴당 \$100 돌파 후 일부 조정 ↳ 현재 4 개월 신고가 수준 유지 ↳ 트럼프, '이란이 협상 원한다'·'우크라이나-러시아 에너지 인프라 공격 자제 합의' 발표로 유가 상승폭 제한 • 달러 2 주 신고가, 금·은 1 개월 저점으로 급락 ↳ 달러 광범위 강세(안전자산 선호, 연준 인상 기대) ↳ EUR/USD 1.1523 으로 하락(-0.36%) ↳ 금, \$4,312.59/온스로 8 월 7 일 이후 최저(-0.8%) • BofA, 3 분기 투자은행 수수료 10% 이상 하락 예상 ↳ BofA CEO 무이년, 3 분기 투자은행 수수료 \$16~18 억(전년동기 \$20 억 대비 최소 10% 하락) 예상 ↳ 매매 수익은 전분기 보합 수준 ↳ BofA 주가 -5% 이상 급락 • BofA, 2026 년 S&P500 목표 7,400 으로 상향, 단기 변동성은 심화 ↳ 2026 년 S&P500 목표를 7,100 에서 7,400 으로 상향 ↳ 다만 PER(주가수익비율)은 2025 년 4 월 이후 최저(금리 인상 영향) ↳ AI 자본투자 확대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것이 우주의 중심') • 트럼프, 성인 1 인 \$5,000 지급 공약'예산에 쉽게 포함' 강조 ↳ 공화당 의회 통제 유지 시에만 실행 가능

권역	요약
	↳ '충분한 수입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주장만 제시, 구체적 재원은 미명시
유럽 뉴스 8 건 HIGH	• 유로존 채권 수익률이 2009 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 ↳ 독일 10 년물 국채 수익률 3.5544%까지 상승해 17 년 만에 최고 기록 경신 ↳ 브렌트유 4.5% 상승, 유럽 천연가스 2022 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채권 약세 견인 ↳ 금융시장이 올해 ECB 의 추가 인상을 최소 1 회 반영 • ECB,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 강조 ↳ Schnabel·Kazimir·Kazaks 등 ECB 정책위원들이 에너지 가격이 기저 시나리오를 훨씬 상회한다고 우려 ↳ 지난주 기준금리 인상 시 일부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나, 현재 에너지 가격이 이미 그 수준을 초과 • 스털링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속 5 주 저점으로 약세 ↳ GBP/USD 가 1.3474 까지 하락해 8 월 7 일 이후 최저를 기록, 현재 1.35 아래에서 보합 ↳ 유가 급상승과 AI 리스크 우려로 투자자들의 달러 선호 심화, 유로·엔화도 동반 약세 ↳ 이번주 ECB·연준·영란은행 등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 • 영란은행, 2026 년 4 분기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 ↳ 시티그룹이 4 분기와 1 분기에 각각 25bp(0.25%) 인상 예상, 기존 전망(2027 년 2 분기까지 동결)에서 크게 앞당김 ↳ 골드만삭스는 11 월 인상 가능성 제시 ↳ 글로벌 긴축 기조와 영국 인플레이션 압력에 영란은행도 동참할 가능성 높음 • Lagarde, 유럽의 AI 기술 독립성 확보 필수성 역설 ↳ 유럽 기업들이 AI 에 투자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술을 미국 등에서 수입해 지정학적 취약성 노출 ↳ 기술 접근 차단 시 유럽의 경제 자율성과 생활 수준 유지 위협 ↳ AI 가 국경 검사·세금 감시·열차 운영 등 광범위한 영역에 활용될 것 예상
중국 뉴스 6 건 HIGH	• 8 월 신규 위안화 대출 600 억 위안, 예상치의 15% 수준에 그쳐 신용 수요 극도로 위축 ↳ 설문 기대 4,000 억 위안 대비 85% 하회, 7 월 -3,400 억 위안 기록적 적자에서 반등했으나 절대 수준 여전히 낮음 ↳ 대출 잔액 증가율 +4.9%로 기록적 저점(설문 +5.1%) • M2 통화량 +7.5%, 사회용자총량 +7.2%, 통화 스톡은 견조하나 신용 창출은 동반되지 않음 • 인민은행, 거시건전성평가(MPA) 체계에 새 지표 도입, 은행 채권 포지션 규제 강화 ↳ 금리·수익률 이탈도 추적, 장기금리 상승 견제 의도 ↳ 구체적 벤치마크는 업계 협의 단계
인도 뉴스 5 건 HIGH	• 인도 8 월 소매물가 +4.82%, 10 월 금리 인상 압력 강화 ↳ 전일 발표된 8 월 소매물가지수는 전년동기비 +4.82%로 7 월 4.45%에서 상승, 로이터 설문 기대치(4.80%)를 소폭 상회, 식품·연료 가격 주도로 3 개월 연속 인도중앙은행(RBI) 4% 중기 목표선 상회 ↳ RBI 는 지난달 정책금리를 5.25%에 동결했으나, 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의 인상론

권역	요약
	신호로 10 월 회의에서의 인상 가능성 커짐 ↳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 "향후 수개월간 물가가 5%를 돌파해 RBI 의 6% 상한선을 상회할 수 있으며, 2 차 가격 상승 압력(임금-물가 악순환) 신호도 증가" 지적
일본 뉴스 1 건	• 일본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 심화, 원자력 정책 전환 필요 ↳ 화석연료가 일본 전력의 80%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 ↳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에너지 수급 차질, 7 월 수입가 전년대비 88% 증가 ↳ 분석 칼럼은 다카이치 총리 정부의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 재검토 필요성 강조
브라질 뉴스 6 건	• 대선 경쟁 초박빙, 브라질 자산 약세 가속, 헤알화·증시 하락 ↳ 룰라 47%, 플라비오 보우소나루 46%로 거의 동점(BTG/Nexus 여론조사), 지난주 보우소나루 우세에서 초박빙 구도로 반전 ↳ 헤알화 0.8%, 이보베스파 지수 1.5% 하락, 중남미 역내 통화 1.1%·주식 1.8% 동반 약세 ↳ 중동 분쟁으로 유가·미국 국채수익률 급등, 위험자산 회피 유도로 신흥시장 전반에 영향 • 기준금리(Selic), 수요일 25bp 인하 예상, 5 회 연속 인하로 13.75%까지 ↳ 설문 51 명 중 48 명 경제학자가 인하 예상, 3 명은 동결 전망 ↳ 인플레이션 완화로 추가 인하 여력 평가, 현 14.00%에서 13.75%로 인하 • 2026 년 거시 전망 소폭 조정, 물가상승률 4.90%·GDP 성장률 1.89% ↳ 인플레이션 전망 5.00% → 4.90%로 10bp 하향 조정 ↳ GDP 성장률 전망 1.93% → 1.89%로 4bp 하향, 2027 년 연말 Selic 목표 12.00% 유지
EM 기타 뉴스 3 건	• 인도네시아, 재정규율 강화 신호로 재무장관 교체 ↳ 부재무장관 수아하실 나자라, 신임 재무장관으로 승진 ↳ 푸르바야 장관 임기 중 재정적자 확대 및 신용등급 전망 하향 초래 ↳ 수아하실은 투자자 신뢰도가 높은 테크노크라트로서 프라보워 정책을 지원하면서도 재정 규율 강화를 공약 • 폴란드 7 월 경상수지 -€241.9 억, 로이터 설문 예상치(-€234.1 억)보다 적자 확대 • 잠비아, 지난달 선거 후 무소코트와네 재무장관 재임명 ↳ 무소코트와네는 2021 년 이후 재무장관으로 재직 ↳ 첫 임기 중 팬데믹 이후 아프리카 최초 디폴트 국가의 채무 재구조화 주도 ↳ 현재 IMF 와 새 지원 프로그램 협상 진행 중
프론티어 뉴스 3 건	• 파키스탄 중앙은행, 인플레이션·중동 분쟁 리스크 속에 기준금리 11.5% 3 회 연속 유지 ↳ 4 월 100bp 인상 이후 현재까지 동결 유지, 로이터 설문 9 명 중 8 명이 현 수준 유지를 예상 ↳ 호르무즈 해협 통과 리스크로 유가 상승 압력, 국내 인플레이션 급등 속에서 내린 결정 ↳ 2026~27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3.5~4.5% 전망 유지, 외환보유액은 2027 년 6 월까지 3 개월치 수입 대응 가능 규모 도달 목표(중동 리스크 등으로 변동 가능)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